



마카오 리스보아 호텔 화장실



글·사진 홍 하 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전문위원
 MBC 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소설: '외인부대원 괴레앙'

외국에 나가면 화장실 사진을 찍는다

내가 화장실 사진을 찍을 때면 으레 친구들이 묻는다.
 "그걸 찍어서 뭐 할려고 그래?" 그렇게 물으면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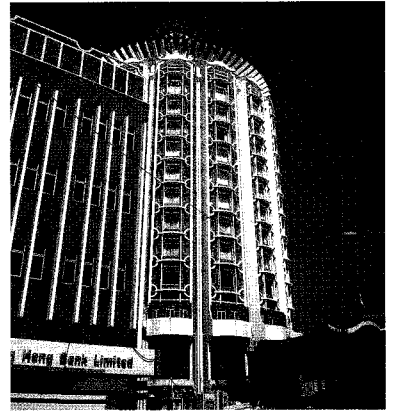
화장실 사진을 찍게된 이유

외국에 나가서 화장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이다. 1991년 5월 동경의 긴자에서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서울 YMCA 총재로 계시는 김수규씨와 역시 일본 동경YMCA 간사로 있는 남궁성일군이 일행이었다. 구롱보라는 클럽이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화장실이 예술이었다. 고상한 자주색 타일 벽에 소변기 위에는 장미 생화가 한송이 꽃혀있고, 금박의 세면기는 아주 고급품이었다. 실내에는 향수를 뿌려 놓아 향기가 은은했다. 게다가 얼마나 청결한지 바닥에는 물 한방울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마치 파리 샹젤리제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다. 그때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화장실이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간이 아니구나. '화장실도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소변을 보고 나오니 여자종업원이 뜨거운 물수건을 주었다. 그걸로 손을 닦았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에게 뜨거운 물수건을 주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홍콩 같은 곳에서는 물수건이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찬 물수건이다.

일본에서는 비행기를 타도 뜨거운 물수건을 스튜어디스가 나눠준다. 한 여름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더 없이 상쾌하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약 50회 정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화장실 사진을 찍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다. 재작년부터인가. 느닷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이 벌어졌다. 공청회도 열리고, 미소공(美小空)같은 화장실 잡지도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찍은 화장실 사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리스보아 호텔



마카오에서 가장 좋고 오래된 리스보아 호텔 화장실은 전수로 치면

천결성 A, 쾌석함 A, 편리성 A 만점이다.

이번 호(號)는 마카오 편

마카오는 이제 중국 땅이 되었지만, 내가 마카오에 갔을 때는 아직 포르투갈령이었다.

홍콩에서 쾌속정을 타고 한시간 정도 걸려 마카오에 들어갔다. 마카오가 포르투갈 땅이 된 것은 1887년이다. 힘이 없던 중국이 영국에 홍콩을 빼앗기고 40년쯤 지났을 때이다.

오늘날의 포르투갈은 유럽 최하의 빈국으로 전락했지만, 1600년대의 포르투갈은 유럽 최대의 강국 중의 하나였다. 오늘날 일본의 문호를 최초로 연 국가가 바로 포르투갈이었다.

1543년, 일본 큐슈 남단의 섬, 종자도(種子島)에 포르투갈 상선이 도착하면서 일본은 개국의 길로 나아갔다. 그때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전해준 것이 바로 조총이었다. 칼밖에 없었던 일본은 철폐, 즉 조총의 위력에 놀라 칼을 버리고 총의 세계로 뛰어든다. 당시 종자도의 도주는 총 두 자루를 은괴 8천냥을 주고 샀는데, 한자루는 고히 모셔두고 또 한 자루는 분해해서 그 구조를 연구하는데 썼다. 그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총을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서기 1600년에 이르르면 전 유럽이 갖고 있던 총보다도 더 많은 8만 정량의 총을 보유하기에 이른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들고 들어왔던 조총은 바로 포르투갈인들이 전해준 그 총을 모델로 개발한 것이다.

마카오의 중심가 중의 하나인 따산따파이팡으로 간다.

거기에 성 폴 성당이 서있는데 이제는 전면의 거대한 대리석 벽만 남고 불타버린 성 폴 성당은 1600년대 초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 건물의 지하로 들어가면 그 옛날 순교자 들의 유골이 유리벽에 놓여져 보관되어 있는데 그 유리벽 속의 유골 중에는 조선인들의 유골도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노예 시장이 있던 나가사키에서 유럽의 노예상들에게 팔려간 조선인 노예들이다. 유럽의 노예상들은 나가사키 에서 조선인 노예들을 구입한 후 이곳 마카오 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갔던 것이다. 그 중에 더러는 천주교 영세를 받았고 병사한 사람들은 여기에 묻혔다. 국가가 힘이 없으니 죄 없는 백성들만

포르투갈풍 거리

미국 만리에 까지 노예로 팔려가다 죽은 것이다. '도대체 그 당시 조선의 조정은 뭘 하고 있었는데, 그 잘난 벼슬아치들은 다 뭘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인지 보고 오라'고 사신으로 김성일과 황윤길을 보냈더니 당파의 이해에 얽혀 갑론을박(甲論乙駁) 말싸움이나 하다가 결국은 난리를 만나고 말았다. 선조는 일본군에 쫓겨 평안도까지 도망을 가다가 피난지에서 도루묵을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는지 몰랐다"는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 중기의 상황이다. 일본은 총과 대포를 만들어 조선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정신나간 관리와 임금이 백성을 거지꼴로 만든 것이다. 성 폴 성당의 지하실 유리벽 속에 있던 조선인 유골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심정은 그때 정말 착잡했다. 성 폴 성당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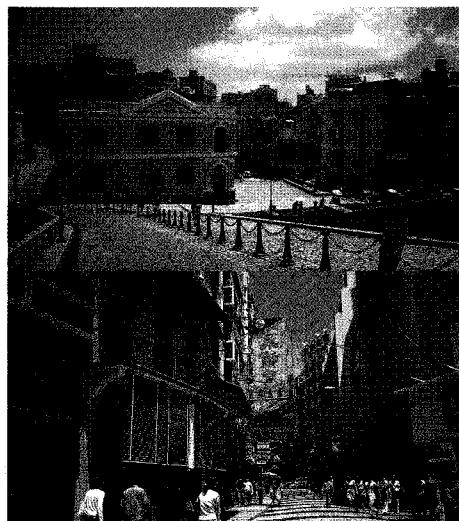
훌륭한 호텔은 화장실도 만점

아열대인 마카오의 한여름 더위는 정말 살인적이었다. 섭씨 42도에 습도까지 높아 일사병으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땀을 비오듯 흘리다가 더위도 피할 겸 마카오에서 가장 좋고 오래된 호텔인 리스보아 호텔로 들어갔다. 리스보아라는 말은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의 원음이다. 포르투갈 왕관이 건물옥상에 쓰여져 있는 리스보아 호텔. 로비에 모두 그 옛날의 대리석이 깔려 있고, 천정에는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다. 과거 총독부 시절의 고풍스런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왕년의 명성대로 리스보아 호텔 안은 쾌적했다. 호텔 커피숍에 앉아 냉수를 한 컵 들이키고 냉

커피까지 한잔 마시고 나니 더위로 팽팽 돌던 머리가 이내 개운해졌다. 그리고 나니 역시 오줌이 마렵다. 화장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향수 냄새가 은은하다. 소변기 몇 개에 좌변기가 세 개쯤 있는 작은 화장실이다. 하지만 변기는 고급품이고, 문틀은 티크원목으로 짠 루바형의 고급스런 분위기이다. 작지만 깔끔하고 우아하다. 중국인이 한사람 있는데 가만히 보니 손님이 아니라 화장실 당번이다. 쉬지않고 부지런히 소변기 타일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바닥도 열심히 닦는다. 오줌을 누고 서있는데, 어렵쇼! 이 친구 동안마 를 해준다. 왕년에 강남에 있던 우리나라 큰 술집 같다. 볼일을 보고 나자 이 친구 물수건을 냉큼 집어준다. 왕년에 이곳에 파견나온 포르투갈인들에게 해주던 방식이다. 그걸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팁 한푼. 리스보아 호텔은 왕년의 명성과 분위기가 있다. 화장실 당번을 따로 둘 정도로 화장실 청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수로 치면,

청결성 A, 쾌적함A, 편리성A 만점이다.



포르투갈풍 거리 (상·하)▶